

공주시 유구 자카드직물산업과 지역고용 활성화 방안

이 민 정

충남연구원 책임연구원, minjoung1006@cni.re.kr

송 민 정

충남연구원 연구원, minjeong0513@cni.re.kr

본 연구는 충남 공주시 유구읍의 자카드직물업체 현황분석을 통해 유구 지역 직물산지를 산업적, 문화적 관점에서 접근하여 고용전략과 지원 방안을 제안하는 것임.

CONTENTS

1. 자카드 직물 산지 공주 유구
2. 섬유산업과 섬유정책 개괄
3. 국외 사례분석
4. 유구 자카드직물업체 현황
5. 정책 제언

요약

- ◀ 자카드(Jacquard) 직물은 제직 및 편직의 한 공정으로 직조기계를 사용해 복잡한 문양을 표현한 직물의 통칭임. 넥타이, 스카프 등 의류용 실크 직물부터 인테리어용에 이르기까지 널리 쓰임.
 - 경남 진주(의류용 실크 자카드), 충남 공주 유구(인테리어용 자카드), 대구 경북(화섬 자카드)과 같이 지역마다 집적분야 다름
- ◀ 공주시 유구지역 섬유업체 65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실시.
 - 기업규모는 4명 이하(61.5%)와 5~9인 이하(20.0%)가 대부분으로 업체 규모 영세함.
 - 매출액이 클수록 의류, 침구/홈인테리어, 산업용제품 취급 업체가 많았음.
 - 임가공 필요인력 대부분은 지인소개를 통해 채용(54.5%)하고, 정보수집은 대부분 거래처·관계자(84.6%)로부터 얻음.
 - 자체브랜드 보유업체는 38.5%이지만, 디자인분야 인력이 없는 업체가 40.0%에 달해 취약성을 드러냄.
- ◀ 공주시 유구지역 자카드 산업과 고용 활성화를 위해 다음을 제안함
 - 업스트림 분야 : 조합에서 원사 공동구매, 방적사 직거래 추진
 - 미들스트림 분야 : 기존 기관(자카드연구소, 조합)의 역량 강화 및 협력, 후계자 양성 및 전통기술 보전
 - 다운스트림 분야 : 시제품 및 완제품 제작을 위한 봉제, 디자인전문인력 보강, 자체브랜드 '자카팩스' 홍보
 - 유구지역의 산업문화적 접근 : 유구섬유역사전시관, 유구시장, 공장벽화 등을 엮은 마을재생 코디네이터

01

자카드 직물 산지(產地) 공주 유구

- 자카드(Jacquard) 직물은 섬유 제직 및 편직 공정의 하나로 직조기계를 사용해 복잡한 문양을 표현한 직물의 통칭
 - 넥타이, 스카프 등 의류용 실크직물부터 자동차 시트커버 등 인테리어용에 이르기까지 범용도 높은 직물
 - 경남 진주(의류용 실크 자카드), 충남 공주 유구(인테리어용 자카드), 대구 경북(화섬 자카드)과 같이 지역마다 집적분야가 조금씩 다름

[그림 1] 자카드직물 활용제품 (예시)¹⁾



1) 출처 : 넥타이(<https://www.gucci.com/kr/ko/pr/men/mens-accessories/mens-ties/mens-patterned/gg-pattern-silk-jacquard-tie-p-4565224B0024900?position=6&listName=PGKR4Cols&categoryPath=Men/Mens-Accessories/Mens-Ties>)
 지갑(<https://www.gucci.com/kr/ko/pr/men/mens-small-leathergoods/mens-long-wallets/web-gg-supreme-long-wallet-p-408836KHN4N9791?position=24&listName=PGKR4Cols&categoryPath=Men/Mens-Small-Leathergoods/Wallets>)
 카펫(http://mall.hanssem.com/goods/goodsDetailMall.do?gdsNo=75615&searchdetail=gds_view&searchPagelist=3)

- 공주 유구지역 자카드 집적은 한국전쟁 이후 북한의 직조업자 피난민에 의해 형성
 - 1950년대 중반 이후 인건 생산 증가와 직조업 호황으로 250여 공장, 3천여 직공이 근무
 - 1970년대 유구의 색동²⁾은 전국제일의 명성을 얻어 전국 생산량의 70%를 점유
 - 1990년대 이후 중국산 수입과 국내 섬유업의 쇠퇴와 함께 자카드직물산업도 쇠퇴 시작
 - 현재는 50여 업체가 인테리어 자카드 직물을 주로 생산. 90% 이상은 수출

- 섬유산업은 쇠퇴했지만 섬유산지(產地)에는 고유의 지속가능한 경제발전 가능성 존재
 - 어패럴 제품 등 일상품은 가격경쟁에 쉽게 좌우되므로 개발도상국의 저렴한 제품에 크게 영향을 받음
 - 하지만 제품에 고부가가치를 입혀 또 다른 제품시장을 개척한 경우를 볼 수 있음
 - 섬유산업의 혁신과 판로확대를 지향하는 지역기반의 섬유산업에 주목하여 지역경제 재생의 과제를 생각해야 함
 - 충남은 15개 광역자치단체 중 3번째로 높은 고용률을 보여주고 있지만(2016년 기준), 글로벌 경기여파에 고용률이 크게 영향을 받는 특징이 있음
 - 이러한 상황을 바꿔가기 위해서는 지역연고산업단지를 중심으로 ‘대기업-하청기업’, ‘대도시-지방간 격차’ 등의 경제구조 탈피 전략을 마련해야 함.

- 이번 조사결과에 따르면, 섬유산업은 고용창출효과가 높은 산업으로 제조업 평균을 상회
 - 충남지역 섬유산업의 ‘전국 전산업’ 취업유발은 10억 원당 9.0명으로 제조업 전체 8.0명 보다 높게 나타남
 - 이를 ‘충남지역 섬유산업’ 취업유발로 한정하면 3.4명, ‘충남지역 전산업’ 취업유발로 한정하면 4.1명의 취업유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2) 색사를 사용하여 무지개와 같은 여러 가지 색의 줄무늬를 나타내는 직물(출처: DAUM백과 패션큰사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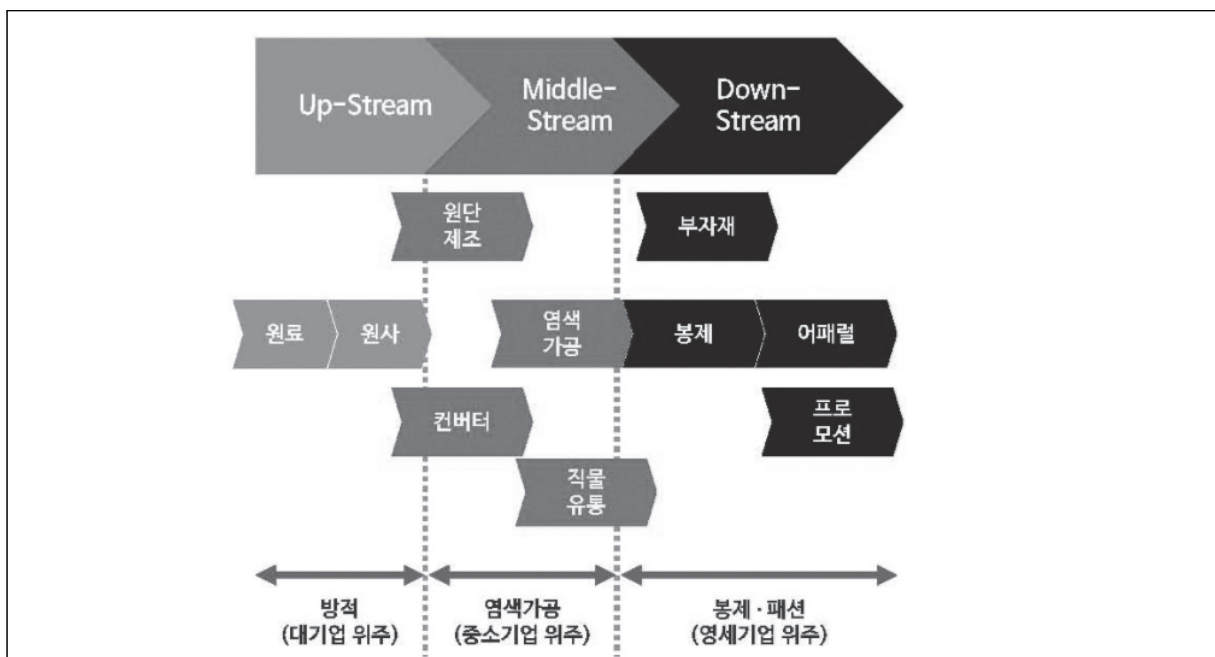
02

섬유산업 및 관련정책 개괄

1. 섬유산업의 특징

- 섬유산업은 원료의 공급, 제조, 가공, 유통 업종이 협력 구조로 운영되는 특징
 - 제조공정에 따라 원사, 방직, 제직, 편직, 부직포, 염색, 가공, 봉제, 판매유통 업종 분류
 - 원료섬유에 따라 화섬, 면직물, 모직물, 견직물 등으로 분류
 - 각 단계가 지역고용 전략을 엮어낼 분야로 연결될 가능성 존재

[그림 2] 섬유산업의 전후방 연계구조



자료) TIN 뉴스 (2016.11.2. 기사)

2. 우리나라 섬유산업정책의 변천과정

- 외화획득 등을 목적으로 경공업제품인 섬유수출 확대 정책 시행
- 합성섬유 발달과 원자재 조달이 원활해져 수출경쟁력 향상 효과
- 1970년대 한국은 홍콩, 대만과 함께 세계 의류수출의 Big3로 불림

1) 1980년대 : 산업합리화 통한 섬유산업 경쟁력 강화

-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신보호무역주의가 무역장벽으로 작용
- 저렴한 인건비의 개발도상국 점유율 상승으로 우리나라 수출경제성장 한계점 노정
- 국내 인건비 상승 등으로 의류 및 섬유업체들의 해외 생산기지 이전 시작
- 대량생산제품(해외생산), 고급패션제품(국내생산)으로 섬유산업의 내수산업화

2) 1990년대 : 지식집약형 섬유산업 육성

- R&D 지원 통한 새로운 제품개발 통해 섬유수출산업화에 집중
- 단기간에 기술집약형 산업구조로 개선하기 위해 ‘섬유산업 구조개선을 위한 7개년 계획’ 수립
- 기존 의류수출에서 기술 및 자본집약적 직물분야, 산업용 섬유분야 수출 제고에 노력

3) 2000년대 이후 : 첨단섬유산업 발전

- 2005년 섬유쿼터 완전폐지(섬유무역자유화)로 개발도상국의 시장점유율이 한층 높아짐
- 이에 대응하여 개도국과 경쟁이 상대적으로 덜한 탄소섬유 등 첨단 고기능섬유에 치중

3. 국가의 섬유산업 발전전략과 공주 유구지역의 위상

1) 인프라 구축

- 섬유관련 최초 산업단지는 서울의 구로공단으로 공장의 공급 및 집적화를 통한 저비용, 저규제가 성공요인.
- 이후 경북 구미지역에 ‘구미 국가산업 제1단지’ 조성으로 섬유관련 대기업이 입주하여 화학섬유산업 발전을 견인
- 1980년대 후반에는 대구 비산염색단지, 경기도 반월염색단지가 조성되어 고부가가치 염색 가공기술 발전을 견인

2) 전문 섬유연구소

- 1990년대 이후 지역별 섬유전문연구소(센터)가 설립.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섬유부문 별로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 인력양성, 마케팅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
- 유구에도 ‘한국 자카드연구소’가 설립

[그림 3] 지역별 스트림별 섬유인프라 구축 분포도



자료) TIN뉴스(2017,5,9.)

3) 인력양성

- 노동집약적 특성을 가지는 섬유산업은 제조과정에서 작업자의 기술, 기능숙련 정도에 따라 품질과 생산성에 영향을 미쳐 현장중심의 기술과 기능인력 양성이 중요
- 현장인력양성은 지역별 섬유연구소가 주체가 되어 지역특성에 맞게 추진
- 정부는 의류봉제 관련기업의 인력공급 확대를 위해 무료교육과 취업알선 사업 추진

4) 해외시장 개척 지원

-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 수출유망품목 발굴과 고부가가치 섬유수출 확대를 위하여 해외 전시회 참가 지원 등의 마케팅분야 적극 지원
- 국제섬유전시회 개최 : 서울(가을)과 대구(봄)에서 매년 개최

03

국외 사례분석

1. 이탈리아 ‘제3이탈리아’

- 중소기업들의 “유연한 전문화(Flexible specialization)”와 “경쟁과 협조의 수평적 네트워크”
 - 이탈리아 중북부의 에밀리아 로마냐 주, 베네통 주, 토스카나 주 등에 집적한 중소기업과 장인기업
 - 지역경제 발전 촉진을 넘어 이탈리아 경제 전체발전을 견인
- 이탈리아 제3이탈리아의 4가지 특징
 - 특정분야의 중소기업이 집적하여 다양한 니즈에 유연하게 대응하면서 고도로 전문화하여 생산
 - 중소기업들이 지역 내 분업을 발전시켜, 수평적이고 긴밀한 네트워크를 형성
 - 산지(產地) 내에서 기술혁명과 제품개발을 둘러싼 경쟁이 보이는 한편, 산지를 발전시키기 위한 상호신뢰 기반의 기업 간 연계가 존재
 - 산지 내 기업네트워크를 지탱하는 CNA(전국직물인연합회)와 주(州)정부에 의한 지원시스템이 효과적으로 발휘
- 에밀리아 로마냐 주 ERVET(지역경제활성화공사)
 - 지역의 각종 서비스센터를 총괄하는 조정자로서 주 정부 전체의 통합적 프로젝트를 구상 및 실행하고 관련연구 수행, 지역기업에 정보제공 및 기술 지원
 - 산하 서비스센터 중 CITER(섬유제조업센터)는 주 정부와 460개 업체가 출자하여 설립
 - 세계의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차기 시즌의 유망상품에 대한 개발지원

2. 일본 ‘지역섬유산지 활성화전략’

- 종래 일본에서 섬유업계 제조업자는 방직, 직포, 니트, 염색, 봉제 등의 전문제조가공에 특화하여 사업을 전개
- 근래에는 시장규모 축소경향과 IT기술발전 등으로 인한 유통구조 변화로, 제조업자 중에도 자체상품 개발에 주력하는 기업 증가
 - 지역활성화 관점에서 산지기업에 대한 관심 높아져 SNS, 미디어 등을 활용하여 실적으로 연결시키는 기업 등장
 - 각사에서는 비용감축과 업무개선 등을 통해 대응하고 있지만, 업체 감소경향 계속
 - 분업체제 유지, Made in Japan 생산체제 재구축이 과제
- 인재육성과 기능전승
 - 섬유업계 위축으로 인한 신규채용 난항과 제조업자 고령화로 기술전승과 인재육성이 중요한 테마로 대두
 - 전국적인 섬유산업 관련강좌 유지

3. 일본 ‘지역섬유산지의 문화가치적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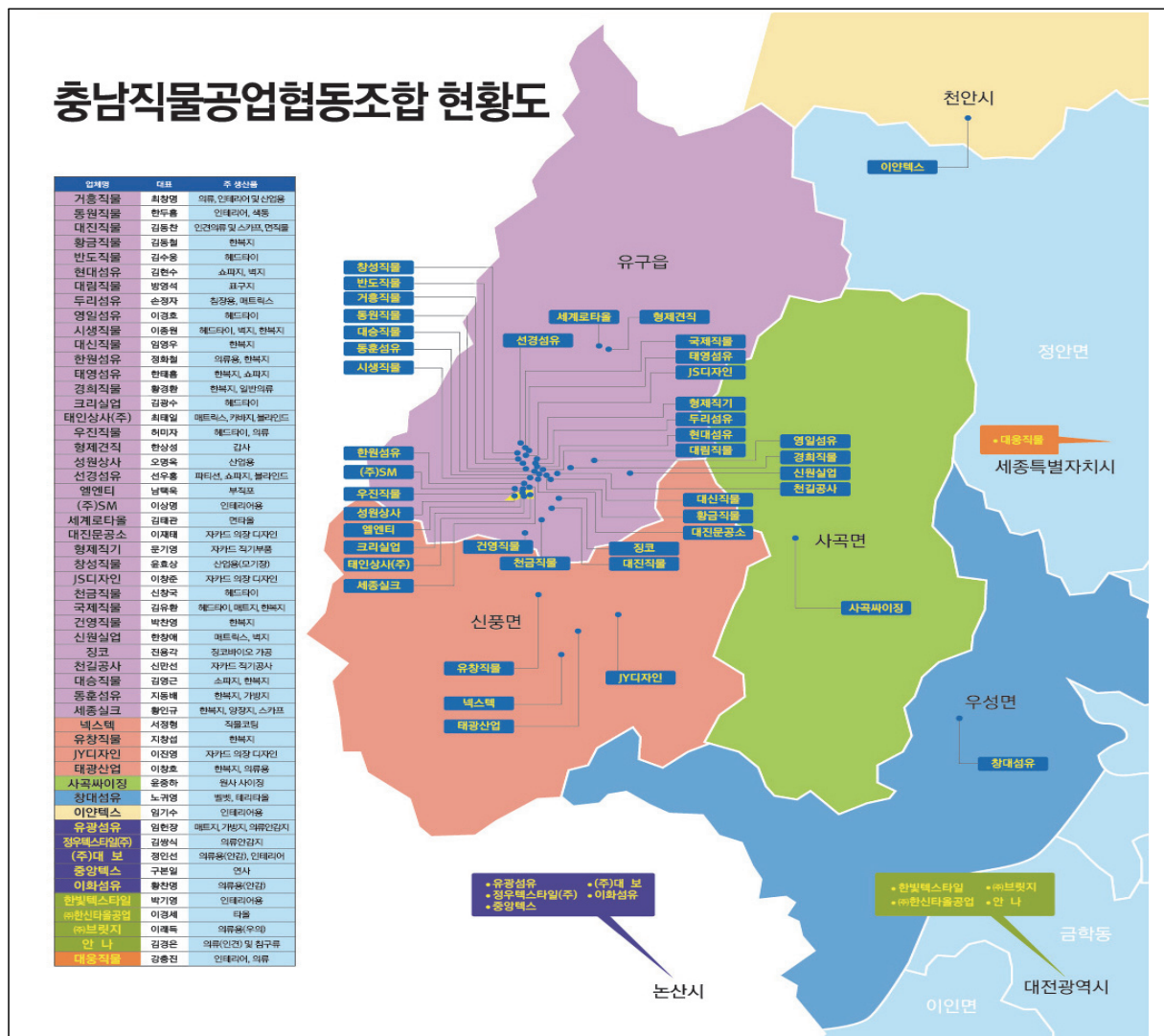
- 섬유박물관과 섬유장터
 - 섬유박물관은 지역의 다른 문화·관광요소들과 결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지역전통산업을 기반으로 한 특화박물관 조성 사례에서는 지역 전통산업의 계승 및 새로운 발전전략 확인 가능
 - 유구에도 ‘유구섬유역사전시관’이 2017년 11월 개관
 - 섬유관련 주요국에서는 ‘섬유국제장터’를 개최하여 특화판매기능 강화, 수출기능 활성화
- 산업관광 (일본 츠바메산조 공장페스티벌)
 - 츠바메산조 지역은 에도(江都)시대부터의 금속가공 산지로 역사가 깊은 지역. 식칼, 프라이팬, 식기 등 조리도구 및 프레스, 주조 등의 금속가공제조업이 집적
 - ‘전통체험’을 넘어 공장(생산공간)에서 배우고 체험하는 과정을 통해 ‘전통을 관광문화로’ 만드는데 성공한 사례

04

유구 자카드직물업체 현황

- 현재 공주시 유구지역에만 약 50개 업체가 집적하여 직물산지 형성

[그림 4] 유구읍 직물업체 현황



자료) 충남직물공업협동조합

- 공주시 자카드직물업체를 중심으로 조직된 ‘충남직물공업협동조합’의 회원사 38개사와 탈퇴조합원 27개사(공주시 소재업체 한정)의 총 65개사를 대상으로 설문 실시(유구 지역 50여개사 및 기타 지역 조합 회원사 포함)

● 주요생산품목

- ① 43.1%(31개사)가 침구/홈인테리어제품 제조, ② 18.1%(13개사)는 의류제품
- 그밖에 산업용제품, 타올류 제조업, 펠트/부직포 가공업 등을 생산하고 있어 대부분의 섬유업체들이 의류 이외의 제품을 다루는 것으로 나타남.
- 매출액이 클수록 의류, 침구/홈인테리어, 산업용 제품을 취급하는 업체가 많음

● 기업규모

- ① 4명 이하(61.5%) ② 5~9인 이하(20%)
- 광공업통계에 잡히지 않는 10인 미만 사업체의 비중이 매우 높음.
- 평균연령은 50대(73.8%), 60대(21.5%)로 약 15년 후부터는 유구지역 섬유업체의 자연도태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어 기능전승 유지 관련 교육시스템 필요

● 운영형태

- 38개사(58.5%)는 자사에서 기획·제안·수주·생산하는 형태로 운영.
- 37개사(56.9%)가 임가공을 하고 있다고 하였는데, 임가공만 하는 업체(11개사)도 있지만 대부분 수주생산·OEM·자사 기획생산 업체가 임가공 형태를 함께 갖고 있음
- 흔히 “유구지역 업체 = 임가공업체”로 업체내 공정이 매우 단순한 것처럼 알려져 있지만, 섬유공정 전반을 다루는 업체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남

● 거래처 개척

- 판매처 개척은 거래처 소개(37.5%), 영업(36.7%), 동업자 소개(17.5%) 비중이 높게 나타남.
- 특히 수출업체의 경우, 인터넷 활용을 통한 거래처 개척비율이 OEM방식과 국내 도매상 판매 업체에 비해 높게 나타났고, OEM방식의 경우 영업을 통한 개척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
- 인터넷 사업 강화를 시도한 업체는 ‘매출액 증가’ 측면에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임. 수출업체를 중심으로 인터넷 판로개척 지원의 중요성을 알 수 있음.

- 전시회 출전을 통한 개척은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났는데 인력 및 체제 미비, 영업방법을 모른다는 응답이 나왔음.
- 판매처 및 시장 니즈에 관한 정보수집은 대부분의 업체가 거래처로(84.6%)를 꼽았으나, 조합 및 협회에서 정보를 얻는다는 응답(15.4%)도 존재함.
- 업체규모 등의 한계로 학회, 전시회 등을 통한 정보수집의 어려움, 전문가 정보접근의 어려움 등을 호소하고 있는데, '제3이탈리아' 사례처럼 조합 및 자카드연구소 역할 강화 및 교류 중요성을 알 수 있음.

● 구인방법

- 지인소개 통한 채용(54.5%)→ 구인구직사이트(31.2%)→ 관련학과 공고(14.3%)
- 특히 임가공 인력의 경우, 지인소개를 통한 구인이 일반적임. 관계자 인터뷰에서는 주민자치센터 봉제 교실 등의 프로그램에서 솜씨가 좋은 주민을 채용하는 것도 보편화되었다고 함.

● 자체브랜드

- 자체브랜드를 보유한 업체는 38.5%(25개사).
- 하지만 이 중 디자인분야 인력에 대해 없음(40%), 1명(56%)으로 응답하여 자체브랜드 운영의 취약성을 보임. 더불어 시제품, 홍보 및 마케팅 체제도 거의 마련되어 있지 않았음.
- 2015년 조합에서 '자카팩스'라는 조합업체 공동브랜드를 출시

● 공적 시책

- 보조금/세금감면 시책에 대해서는 이용률(61.5%)과 만족도(52.3%)가 가장 높게 나옴
- 보조금 감면과 처리용자 이외 시책은 약 80% 업체가 이용한 적 없다고 응답했는데, 그 이유로 복잡한 신청절차, 복잡한 정산서류, 부족한 지원비용, 정보획득 자체의 어려움 등을 꼽았음.
- 영세업체가 많은 유구지역 집적의 특성상, 조합과 연구소 등이 주축이 되어 정보수집과 활용을 위한 제반사항 준비를 맡아주는 방법 등의 고려 필요
- 희망 시책으로 가장 많은 것은 보조금 및 세금감면임(75.4%). 지원금액 충실화와 더불어 향후 보조금 정책에 활용 필요
- 판로개척지원→처리용자→정보제공→연구개발·디자인 지원→품질실험 등의 희망시책에 대해, 행정지원(판로개척 지원, 처리용자)과 자카드연구소(품질실험), 조합(정보제공) 등의 교류와 협력을 통해 체계를 정비한다면 섬유산지로서의 잠재력을 충분히 제고 가능
- 기타 의견으로는 외국바이어 응대에 대한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 특성섬유제품(텐셀, 라이오셀 등)에 대해 "공주시 인증" 등의 제도를 통해 적극적 지원 및 연구 필요, 전문적 마케팅 교육 필요 등을 제시함.

05 정책 제언

- 공주시 유구지역 자카드 산업과 고용 활성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정책을 제안함

1. 섬유산업 전후방 연계를 고려한 고용창출

- 섬유산업은 원료 공급, 제조, 가공, 유통의 협력적 구조로 운영되고, 각 단계에서 지역 고용 전략을 엮어낼 가능성 존재

1) 업스트림(up-stream, 원료 및 섬유사 생산공정) 부문

- 현재는 대기업 중심으로 원사를 개발, 공급하고 대금회수의 편리성을 위해 벤더를 통해 공급체계를 구축함. 이는 소규모 제직·편직업체의 원가상승을 야기
- 조합에서 원사 공동구매를 통해 대기업 방적사와 직거래 추진
 - 유구읍 자카드업체는 '충남직물공업협동조합'으로 조직적 기틀을 마련함.
 - 조합은 공동구매, 물량 보관을 전담할 인력확보 필요. 지자체 인증 등 제도적 지원

2) 미들스트림(middle-stream, 제직 및 염색 등 가공공정) 부문

- 현재는 중소영세 직물업체가 대기업 및 벤더에게 수주를 받아 임가공 발주하는 형태가 대부분. 이는 저가 임가공료, 수주업체간 과다경쟁을 야기.
- 기존 기관들의 역량강화, 협력 필요
 - 한국자카드섬유연구소는 기술이전, 품질연구 지원
 - 연구소와 조합은 해외마케팅, 국내 섬유전시회, 학회 등에 적극적으로 참가하여 정보수집

- 후계자 양성 및 전통기술 보전

- 특히, 자카드직물 공정의 특수직업인 ‘문공사’(새로운 자카드문양 고안 시, Threading 수에 따라 프레임을 만드는 기술자)가 필요하지만 점차 사라지고 있음.

2) 다운스트림(down-stream, 의류 및 기타 섬유 완제품 생산공정) 부문

- 시제품 및 완제품 제작을 위한 봉제, 디자인 전문인력 보강

- 한국자카드섬유연구소는 공주대, 건양대 등 지역대학과 연계한 교육, 취업알선 등을 수행한 경력을 바탕으로 고용 기회 창출
- 봉제기술교육은 조합을 중심으로 지인을 통한 소개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일본과 같은 ‘섬유학교’ 시스템을 통해 교육의 지속성, 전문성 제고 도모

- 조합의 자체브랜드 ‘자카팩스’ 홍보

- 충남도 혹은 공주시 차원의 인증제도 마련으로 공신력을 제고
- 행정이 주도적으로 기념품 및 선물용으로 구매하고 소개

2. 산업문화적 활성화를 통한 고용창출

- 자카드직물 산지(產地)의 역사성 홍보

- 2017년 11월 ‘유구섬유역사전시관’ 개관으로 유구의 직물산지 홍보 인프라 마련
- 기존 다양한 재생정책이 투입된 유구시장, 공장벽화, 그리고 자카드직물 산지로서 재생을 도와 줄 문화해설사, 마을코디네이터 육성

이 민 정 책임연구원
충남연구원 산업경제연구부
041-840-1172, minjoung1006@cni.re.kr

송 민 정 연구원
충남연구원 산업경제연구부
041-840-0189, minjeong0513@cni.re.kr

* 본 연구는 충남연구원 2017년 전략과제 “충남 지역연고산업의 지역고용을 위한 기초연구 : 공주시 유구 자카드 직물 산업을 사례로”를 요약재구성함.

참 고 자 료

권우현 외. 2015. 「섬유산업 인력수요 전망」, 한국고용정보원.

박훈. 2016. “국내 섬유산업의 가치사슬 구조변화와 발전전략”, 산업연구원.

이규용 외. 2015. 「지역고용전략 사례연구 시리즈」, 한국노동연구원 .